선택 6·4

이런 후보가 좋아요

광주·전남 유권자 30명에 듣는다

장애인 인권 보호 앞장서 주길

김평호(장성군장애인협회장·51)=지역민과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특히 후보 시절 내 건 공약을 당선 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선심 쓰듯 지키지도 않을 공약은 처음부터 발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장애인과 정상인으로 사람을 구별짓지 않고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해주는 풍토를 만드는데 우리 후보자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리더

이찬일(담양동산치과원장·58)=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따뜻한 심장을 함께 지닌 리더를 뽑아야 한다. 연고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도민을 위해 세월호 의인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던질 수 있고, 시·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또 시민과 소통하며 언제나 함께 하는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

지역민 위한 공약 꼭 실천을

박근성(조선대 경영학부 3년·25)=시민의 생각, 시민의 편의,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잘 반영된 공약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지역민의 대표자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민을 위한 공약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길 바란다. 처음에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다짐했던 후보들도 결국에는 흑색비방·네거티브 선거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자신이 곧 지역민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보여주길 바란다.

학생·교사 행복한 만남 지원

김현진(교사·39)=광주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행복한 만남을 지원해야 한다. 광주교육의 핵심은 '행복한 광주'를 바탕으로 하면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 방침이 기본이 돼야 한다. 따라서 학생에게는 '즐거운 학교', 학부모에게는 '무상의무교육', 교사에게는 '학생과 수업 중심'이라는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분이 당선됐으면 한다.

좀 느리더라도 깨끗한 후보

정명철(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48)=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 수백명이 세월호 침몰이라는 인재로 희생됐다. 선진국이라는 문턱 앞에 서 있지만 후진국만도 못한 의식과 인식으로 빠르고 높은 성장만을 강요한 탓이다. 우리는 선거에서도 이러한 못된 기준으로 지지후보를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제는 좀 느리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후보를 선택했으면 한다.

역대 최저 득표율 시장 나오나

윤장현-강운태 양강 구도 광주시장 당선 가능 득표율은?

박빙 접전 43~45% 당선권

양 후보 진영 우세 장담속

마지노선 45%대 득표 총력

광주시장 선거가 막판까지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강운태 무소속 후보 진영에서는 45%대 득표율 돌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윤 후보와 강 후보 진영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광주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43~45%대의 득표율을 확보해야 한다. 일단 양 후보 진영에서는 광주시장 선거전이 윤장현·강운태 후보의 2강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은 과거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 노동당 이병훈 후보, 무소속 이병완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한다 해도 14~18% 내외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82~86% 내외의 득표율을 놓고 윤장현 후보와 강운태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승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43~45%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 후보 진영에서는 서로 오차범위 내외에서 앞서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 당일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윤장현 후보 진영에서는 지난 주말을 계기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이 현실화됐다며 이 같은 상승세가 선거 당일까지 지속된다면 최소한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도 지난 1일 광주시장 판세에 대해 "지난 목요일(5월 29일) 오후 기준으로는 오차범위 내 열세였는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0.4%포인트 수준까지 따라잡았다"면서 "지금은 골든크로스를 지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선거 당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윤 후보의 득표율이 50% 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강운태 후보 측에서는 자체 분석 결과, 사전선거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였으며 이는 전체적인 판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5%대를 넘어 50% 초·중반의 득표율은 무난하며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마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 후보 진영에서는 '이용섭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깨끗이 승복하고 강 후보와 동행 유세에 나선 것은 물론 선거 당일까지 단식을 감행하기로 하면서 부동층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 후보 진영에서는 전략공천의 후폭풍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어 선거 당일 전통적 지지층 결집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시장 선거가 치열한 격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45% 득표율을 기준으로 3~5% 내외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광주시장 당선자의 득표율은 군소후보들의 약진 등이 겹친다면 역대 최저인 45% 이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제1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언종 후보가 89.71%의 지지를 얻어 역대 광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제3회 지방선거에서 박광태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46.81%의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됐다. /임동욱 기자 tuim@

지역 현안사업 예산 지킴이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 고군분투

음지에서 묵묵히 '광주현안 사업 예산 지킴이' 역할을 해온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가 지역 지킴이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서 선거막판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새누리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4년 국비지원 예산액은 3조1573억원으로, 애초 정부 예산안(3조1024억원)보다 549억원 늘었다. 전년 (2조5181억원) 보다도 25.3%인 6392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신규사업만 47건 739억원이다.

이 같은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이 주효했지만,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물밑 협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없다.

실제 강운태 광주시장도 2014 국비지원 예산액 확보와 관련해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장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확보는 물론 광주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광주 수호천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공문서 위조 논란에 시달리자, 광주시와 함께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28명) 등 154명의 공동 발의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정재 후보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은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광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광주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 광주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와 부인 최명길씨가 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이용섭 상임선대위원장은 2일 지지들과 함께 전략공천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광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장현·강운태 후보 막판 부동표 잡기 총력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지지표 굳히기와 부동층 흡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윤장현 후보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원사격에 이어 이날 김한길, 박지원, 정세균, 추미애 등 중앙당 지도부의 총력 지원을 받으며 막판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부인 최명길씨와 함께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양동시장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윤 후보 지원 유세을 벌였다.김 대표는 "윤 후보를 공천할 때 광주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논 드리지 못해 사과 드린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김한길을 꾸짖어주시고 안철수 대표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도 이날 존 클랜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장과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0여명이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도 공을 들였다.

강 후보 측은 광주의 명예혁명, '시민승리 48시간 하이 파이브 마라톤 유세'를 선언하고 막판 표밭 다지기를 위해 총력전을 선언했다.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한 이용섭 선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당적 지원에 단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선대위원장은 광주시장 선거에서 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이날부터 선거일인 4일까지 광주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